

일반대학 군사학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김종열*

요 약

일반대학에 군사학과가 개설된 지 약 10년이 되어간다. 군사학이 일반대학교에서 발전해 나가고 우수한 장교를 배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본고는 일반대학 군사학과와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군사학과 교육과정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첫째 군사학 학위수여를 하는 군 기관의 교육과정 편성이다. 위관급 장교에게 필요한 실무수행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고, 육사는 군사학 과목의 대부분을 필수과정으로 편성하고 있다. 둘째 군사학의 학문영역으로 전쟁과 군사력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문헌과 학문분류상의 군사학은 사회과학적인 군사학과 공학적인 군사공학으로 분류하고 있다. 넷째 대학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학문성과 실용성이 균형을 유지해야한다고 보았다. 다섯째 군사학 석박사 과정과도 연계성을 유지해야 하고, 여섯째 수요자인 육군의 요구도 만족하고, 학생지도는 훈육지도 성격이 가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반대학 군사학과 학사학위를 위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과목을 도출하였다. 교양으로 3개 분야 5개 과목, 전공으로 3개 분야 14개 과목, 총 19개 과목을 제시하였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ilitary Studies Curriculum at the Civilian Universities

Kim Jong Ryul*

ABSTRACT

It has been almost 10 years since the department of military studies was opened at the civilian universitie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for the success of these new departments would be the curriculum. This paper tries to give an realistic answer to the question of curriculum.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sign of curriculum of military studies are analyzed, such as the curricular of the military institutes that confer the B.S. in military studies, the domain of military studies and research areas, documentation classification of military studies and military engineering, scientific knowledge versus vocational capabilities in university education, relations between the B.S. courses and the master or doctorate courses, requirements asked by the Army, and moral education needed for the military offic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andatory core courses should be total of 19, including 5 general courses and 14 major courses.

Key words : military studies, design of curriculum, domain of military studies, military engineering,

접수일(2013년 5월 7일), 수정일(1차: 2013년 5월 20일,
2차: 2013년 5월 28일), 게재확정일(2013년 5월 27일)

*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1. 서 론

사관학교가 아닌 일반대학에서 군사학과가 개설하고 약 10년이 되어간다. 정확하게 기술하자면 2004년도에 대전대학교에 최초로 군사학과가 설치되고 2005년도에 경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추가로 군사학과를 개설하게 된다. 그 이후 2011년에 건양대학교, 영남대학교, 용인대학교, 청주대학교에 군사학과가 추가 개설되었고, 육군과 협약체결에 의한 군사학과를 설치한 대학은 현재 8개 대학에 이른다. 육군은 2014년에 3개 대학과 추가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군사학과를 개설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육군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학교 자체적으로 군사학과를 개설한 대학교는 서경대학교, 초당대학교, 경운대학교 등 여러 대학이 존재한다.

군사학과 개설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이지만, 일반 대학교 군사학과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사학이라는 학문의 연구영역을 전쟁이나 협의의 군사문제에만 국한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분분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대학 군사학과에서 교육과정을 어떤 내용으로 편성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 역시 그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다. 육군과 협약에 의해서 육군 장교를 배양하여야 하는 일반대학은 각 대학 나름대로 다양한 장학이념과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군대 조직이나 군대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군대의 비개방성으로 인해 군대조직과의 교류도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은 군사학이라는 학문을 교육하고, 또한 육군 장교라는 특수한 직업에 맞는 품성이나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여, 수요자인 육군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문식 교육 또는 맞춤형 교육인 셈이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교육목표 설정이나 교육과정의 편성을 대학 자율적으로 학칙에 의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일반대학 군사학과 교육과정은 각 대학이 대학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설계되어지고 있다. 일반대학에서 군사학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시작한 지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본고는 “일반대학 군사학 학사과정에서 무엇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제는 향후 군사학이 일반

대학에 뿌리를 내리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냐의 문제와 결부된다. 더구나 일반대학 학부과정에서 배출된 육군 장교가 어떠한 군사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수요자인 군에게도 중요한 관심 사항이다.

2. 연구목적과 방법

지금까지 군사학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2008년 육사 화랑대연구소에서 군사학 학문체계 연구위원회가 “군사학 학문체계와 교육체계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군사학 교육체계에 대한 논의는 군관련 기관이나 사관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1] 최근에 한관수 교수에 의해 일반대학에서의 군사학 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2][3]} 일반대학의 교육과정을 설계함에 있어서 위의 군사학 학문체계 연구위원회가 제시한 군사학 학문영역 5대 분야(전쟁본질과 현상, 안보정책, 군사력운용, 군사력 건설 및 유지, 관련분야)에 근거하고 있다. 군사학 전공도 5개 트랙으로 세분하여 학생이 1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졸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나친 학문중심 위주의 보수적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보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반대학에서 군사학과 학부과정에 어떤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편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에 도달하는 분석의 틀은 우선 현재 군사학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군기관(사관학교와 병과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군사학 학문영역을 비롯하여 일반대학의 군사학 교육과정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재조명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교육과정보다는 개선된 군사학과 교육과정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원 과정이 아닌 학부과정에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종 문헌과 연구자료, 국내 군사학 교육기관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표, 해외 일반대학의 군사학과 인터넷 제공 자료를 근거로 비교, 분석, 대안 모색을 하려한다. 계량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지 않으므로 과학적 객관성보다는 현실적 주관성이 강하다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3. 군 기관의 군사학 학사 교육과정

3.1 군사학 학사학위 수여

군사학 학사학위 수여는 그 수여기관, 즉 군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육군의 경우 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 육군 3사관학교), 병과학교, 그리고 일반대학 군사학과이다. 이 세 기관이 군사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다. 사관학교는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 11개 병과학교의 고군반 과정 수료자는 평생교육법, 일반대학 군사학과 졸업생은 고등교육법이 그 근거법령이다. 고등교육법 제35조와 제43조는 대학에서 학사학위의 종류와 교육과정에 대해서 각 대학의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것이다. 군사학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세 가지 부류의 교육기관 중, 우선 군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3.2 육군 병과학교 교육과정

2002년 평생 교육법 제 4조(평생교육의 이념)와 동법 제28조(학점 등의 인정)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으로 군사학 3개 전공, 즉 군사행정학, 군수관리학, 지상전학이 공시된다. 이로써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 제8조(학력인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는 자는 대학졸업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고, 육군의 경우 11개 병과학교가 학점 인정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2005학년도부터 군사학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국방일보에 의하면 2008학년도에 육군 장교 978명이 군사학 학사학위를 수여받았고 2006학년도에 214명, 2007학년도에 6004명이 군사학 학사학위를 수여받았다.^[4]

<표1> 병과학교 군사학 표준 교육과정

구 분	군사행정학	군수관리학	지상전학
전공필수	공통 (4개)	북한군전술, 전술학 입문, 전투지휘학, 지휘관리학	
	전공별 (2개)	정신전력개론, 군사행정학	전투병과전술학, 지휘관및참모업무
전공선택	34개 과목	35개 과목	82개 과목

군사학 학사학위와 다른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장교가 육군 각 병과학교 초등군사반과 고등군사반 과정을 이수하면서 복수전공과 같은 학위를 수여받게 되는 것이다.

<표1> (출처:진석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군사학 발전방안)에서 알 수 있듯이, 병과학교 군사학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위관급 장교에게 필요한 실무능력 발휘를 위한 교과목에 치중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보병학교의 초군반 교육의 목표는 소대장 임무수행능력 구비이다.^[5] 고군반의 교육목표는 중대장 및 대대 참모 임무수행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6] 육군 장교의 실무수행 능력을 구비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군사학 학사학위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행정학 전공의 전공선택 과목을 살펴보면, 경리병과의 교육과목인 국방계약, 국방세무회계, 국방예산관리 등이 포함되었고, 헌병병과의 군교통관리론, 군범죄수사학, 헌병작전론 등이 있으며, 부관병과 교육과목인 부관행정학, 부대행사, 상훈학 등이 있고, 정훈병과의 교육과목인 정훈실무, 진중문화론, 언론과 공보작전 등이 포함되어 전공 선택 34개 과목을 구성하고 있다. 만약 복수학위로 군사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필수 6개과목 18학점을 포함 3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3.3 육군사관학교 교육과정

육군사관학교는 복수전공제를 도입하여 전원이 졸업하면서 군사학 학사와 일반학 전공의 문학사 또는 이학사의 학위를 수여 받게 된다. 육군사관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을 보면, 군사학은 37학점을 이수하고, 문

과와 이과의 각 전공별 36학점을 이수하게 하여 복수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표2> (출처: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사학 교과편성을 보면 37학점 중 33학점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2> 육사 군사학 과정

구분	과 목	학점(과목수)
필수	전쟁사, 국가안보론, 무기체계, 군사지리/기상, 미래정보전, 방호공학, 웨게임, 군사전략, 북한학, 군대윤리, 군사법, 국방경영	33 (12개 과목)
선택	국제관계, 군사변혁, 민군관계, 현대전쟁연구, 국방경제, 인체생명과학, 군사화학, 무기공학, 군환경관리, 핵/레이저광학	4 (2개 과목)

그리고 군사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일반학 전공과정이 있다. 일반학 문과 전공 중의 하나인 군사사 전공은 10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즉 군사사방법론, 군사제도사, 군사고전의 이해, 작전술/전역 연구, 서양현대사, 한국군사사, 현대전쟁연구, 동양현대사, 무기 발달사, 전략론이다. 이러한 군사사 전공과목은 일반대학의 군사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과 상당수가 중첩이 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 중의 하나는 학년별로 실시되고 있는 군사훈련은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학년은 병기본훈련, 분소대편제화기, 독도법 훈련을, 2학년은 분소대전투기술, 중대편제화기, 공수 훈련을, 3학년은 소대전술훈련, 유격훈련을, 4학년은 지휘관과 참모, 중대전술, 대대전술훈련 등을 실시한다. 이는 학군장교나 학사장교가 임관 전에 약 16주 동안 받는 육군 학생군사학교의 장교 양성교육과 그 내용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4.1 군사학의 학문영역

군사학의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성립이 가능한가? 또는 군사학도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비록 군사학이 공식적으로 학문으로 인정되고 학위를 수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군사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인정기관으로, 군관련 교육기관인 사관학교와 육군 각 병과학교에 한정되어있고, 일반대학은 10여개 학교에서 군사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아직은 일반대학에서 일반적 학문으로 수용하고 전반적으로 군사학을 교육하고 있지는 못한 점은 군사학의 이러한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군사학의 학문적 성격, 지식체계, 연구방법, 타 학문과의 중첩, 교육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란이 있다. 특히 논의의 핵심 중에 하나는 군사학이 학문영역이다. 군사학이 연구해야할 연구영역이 주장하는 학자마다 천차만별이다. 군사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에 대한 논의는 1980년 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어오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군사사상이라는 철학과 같은 인문학로부터, 군사전략, 국방정책 등의 정책학측면의 사회과학, 그리고 군사과학기술, 군사공학 등의 자연과학 및 공학까지 광범위하다. 심지어 전투기술을 익히는 군사훈련 등의 술(art)의 영역도 포함된다면 그 학문영역은 더 넓어지고, 다른 학문과 중첩이 되기도 하여 그야말로 종합 학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7] 이 논제는 해묵은 논란이 아니라 치열하게 논의가 계속되어야할 주제라고 여겨진다. 왜냐면 군사학의 학문영역 즉 연구영역으로부터 일반대학 군사학과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학의 학문성에 대한 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분야가 군사학적 연구가 필요한가는 어느 정도 결정이 가능하리라 본다. 대표적인 군사학 학문 연구영역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몇 가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육사에서 연구한 군사학 연구영역에 대한 2000년도의 연구결과에는 다음 <표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8]

4. 일반대학 교육과정 편성 시 영향요소

<표3> 군사학학문체계 연구위원회 제시안

분 야	연구 영역
전쟁	전쟁론(전쟁본질, 현상), 군사사상
안보	안보정책, 국제정세, 국가전략, 국가경제
군사력 운용	군사전략/작전술/전술, 지휘통솔, 군사정보
군사력 건설/유지	군사제도, 군대교육훈련, 무기체계, 군사관리
연관분야	전쟁사, 군사사, 군시지리, 군사법, 군사과학기술, 군사의학, 군대윤리

이는 군사학의 학문영역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후 육사에서 자체 사관학교 군사학 교육을 위한 연구에서는 보다 더 범위를 좁혀 제시되고 있는데,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사학 교육과정에 군사영어나 군체육을 포함하였다는 것은 좀 더 현실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을 염두에 둔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다.^[9]

<표4> 육사 교육체계 연구위원회 제시안

분 야	연구 영역
군사 기초소양	전쟁본질, 현상, 전쟁 역사
안보	국가안보, 국방정책, 주변국군사정책 북한에 대한 이해
군사력 운용/유지	국방관리분야, 군사전략/작전술/전술, 군사 교리(훈련)
군사력 개발/건설	군사연구개발(R7D), 무기체계 등
보조역할 분야	군사영어, 외국어, 체육

국방대학교가 제시한 군사학 영구영역은 좀더 그 분야가 좁혀져 있고, 세분화되거나 구체화되어 제시되고 있다. <표5>와 같이 특히 군사학을 사회학적 학문으로 보고 공학적 분야인 군사과학기술, 무기체계 분야는 제외되고 있다.^[10]

<표5> 국방대학교 군사학 연구영역 제시안

분 야	주요 과목
군사력 건설	국방정책, 군비통제, 무기체계획득관리, 미래전, 군사혁신 등
군사력 지원	국방조직, 군리더십, 계약과 협상, 회계감사 등
군사력 운용	전쟁사, 각 국가군사론, 북한군사론, 군사사상, 전쟁지도, 전략, 작전술 등
기타분야	군대윤리, 국방경제, 심리학 등
기본분야	군사학연구방법론, 전쟁철학, 군사법, 국가안보론 등

4.2 문헌분류표, 학문분류표에서의 군사학

이상의 세 연구기관에서 제시된 군사학 학문영역은 군사학이 사회과학적 학문 영역에 많이 치우쳐 있다. 군사학이 사회과학의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이준학 교수는 군사학이 너무 군사적 이론에만 치우쳐 있고, 단순히 군대라는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러한 학문은 원래 교유의 학문인 사회과학의 범주에 속 할뿐이라고 주장한다.^[11] 이어서 이준학 교수는 미래전은 첨단 과학기술군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군사학에서 군사공학도 그 학문영역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문헌분류체계인 듀이십진 분류법(DDC, Dewey Decimal Classification)과 나토(NATO)의 군사공학에 대한 정의를 들고 있다. DDC 문헌 분류에는 군사학을 사회과학 범주의 군사학(Military Science, DDC 355-359)과 공학범주의 군사공학(military Engineering, DDC623)으로 분류하고 있다

DDC분류에서 군사학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55 군사학, 356 보병, 357 탑승부대, 358 공군 및 기타 특수부대와 공병 및 관련부대, 359 해군, 623 군사공학 및 해양공학으로 6가지의 분류체계로 구성하고 있다. DDC에서 군사학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박순연은 DDC의 상관색인어에서 추출된 군사학 관련 주제용어 수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12] 군사학 관련주제어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있는 학문분야는 사회과학이었다. 군사학 관련주제어 전체의 40.89%가 사회과학에 포함되어 있었고, 두 번째 학문분야는 기술과학으로서 28.76%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군사학이 사회과학과 가장

유사하지만 그 다음으로 기술과학과 유사한 학문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NATO는 2011년 군사공학의 범위를 군부대의 기동 지원, 부대방호, 급조폭발물 제거, 환경보호, 군사정보 수집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건설과 복구, 지뢰제거, 폭파, 지형정보, 측량, 전투공학, 급수 위생 등으로 연구영역을 지정하고 있다.

또 하나의 학문분류로 여길 수 있는 것이 학술연구분야의 분류표다. 이는 본래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분류표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¹¹³⁾ 이러한 분류는 우리나라 학문의 연구영역에 대한 분류로 간주되기도 한다. 학술연구분야체계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등 4개 단계로 구성되는데 대분류체계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복합학 등 8개로 구성되어 있다. 군사학의 분류체계를 보면, 대분류명은 사회과학, 중분류명은 군사학, 소분류명은 15개 (군사이론, 안보이론, 국방정책론, 군사전략론, 군사기술론, 전쟁론, 무기체계론, 군사정보론, 국방행정론, 군사지리론, 군진의학, 통솔론, 군사사, 기타 군사학)으로 분류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국방행정은 별도로 사회과학-행정학에, 국방정책은 사회과학-정책학에, 군사사는 인문학-역사학으로 이중 분류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연구분야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군사학을 사회과학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공학도 앞의 DDC 분류와 같이 공학의 하부 분류체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3 대학 교육과정의 학문성과 실용성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서로 상충된 논리와 입장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엘리트주의와 실용주의의 대립이다. 김장흠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엘리트주의는 일반학문 중심의 학문성을 추구하여 풍부한 군사학적 소양과 더불어 풍부한 일반학 지식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 여기서 일반학은 군사학을 제외한 다른 학문으로 규정할 수 있다. 과거 육군사관학교가 추구하였던 교육방향이었으며, 일반학 단일 학위만 수여하였다. 지금은 복수학위 즉 일반학 학위와 군사학 학위 2개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게 하고 있다. 실용주의는 대학졸업 후 초급장교에게 직

접적으로 필요한 강인한 체력, 투철한 군인 정신, 중대급 이하의 화기 및 장비의 운용, 소부대 전투지휘능력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하는 것이다.¹¹⁴⁾

군사학과에서 배출된 장교를 고용하고 활용하는 수요자인 육군은 학문성에 초점을 맞춰 교육된, 다양한 학문과 깊이 있는 지식을 지닌 장교를 선호하기 보다는, 강인한 체력과 중대급 이하의 화기나 장비에 대한 활용능력, 그리고 부하를 잘 지휘 통솔하는 실무형 장교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김장흠 교수가 위의 논문에서 인용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004년도에 국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1,2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기업은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실무현장에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된 인재를 찾고 있다고 보인다. 그들은 대학교교육이 기업의 요구와 무관하고 교과과정이 이론 중심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러한 경향은 군사학과 졸업생을 바라보는 육군의 시각도 비슷하리라고 추정해본다. 반면에 대학 교수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대학은 기술이나 기능을 연마하는 직업훈련소가 아니고 학문을 연마하는 곳을 강조한다.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학위는 직무분야에서의 실무능력과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석용 교수는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교양과 전공의 비율, 이론과 실기의 비율, 필수와 선택의 비율 등을 들고 있다.¹¹⁵⁾ 여기서 그는 군사학과와 경우 교육과정이 초급장교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과목으로 구성된다면 초급장교 훈련프로그램이 되고 말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대학 군사학과와 교육과정의 설계방향은 학문성과 실용성의 균형, 즉 학문적 지식을 갖추고, 군 직장에서 실무를 잘 수행할 능력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4.4 수요자 육군의 요구

육군과 일반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군사학과를 개설하고 장교를 육성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대위급 장교, 즉 중대장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즉 영관급 장교에 필요한 군사학 지식보다는 초급장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 지식이 더 절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에 대해해서도 사관학교의 군사학 교과과정에 준하여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협약서상에 명시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군사사상’, ‘군사이론’, ‘전쟁사’, ‘군사사’를 필수과목으로 반영을 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고, 2012년에는 초급장교에 대한 국가관과 안보관 확립 차원에서 ‘한국사’, ‘정신교육’, ‘북한학’ 등을 반영하여 줄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¹¹⁶⁾ 또한 육군-대학 협약의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대학에서 육군 장교의 배출 뿐 만 아니라, 군사학 발전과 확산도 꾀하고 있다. 일반대학으로부터 유능한 초급장교의 배출을 통한 군사전문가 저변확대와, 군사학이라는 학문의 번창을 통한 연구 산물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사학이 학문적으로 깊이 있고 폭넓게 발전된 토양 속에서 훌륭한 인재가 양성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 하겠다.

4.5 군사학 석박사과정과의 연계성

군사학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군 기관은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이다. 석사과정은 학사학위 소지자이면 되지만, 박사과정은 전공관련 석사과정 소지자로 그 자격조건을 한정하고 있다. 석사과정은 7개 전공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안보정책, 군사전략, 국방관리, 리더십, 군사운영분석, 국방정보체계, 무기체계 과정이다. 특징적인 사항은 사회과학적 학문 분야가 4개, 공학적 학문분야 3개 과정(운영분석, 국방정보체계, 무기체계)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사과정은 안보정책을 제외한 6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일반대학의 군사학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대학교로 충남대와 대전대의 경우를 살펴보자.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은 군사학 석사과정은 4개의 전공과정인 국방정책, 군사학, 군수획득관리, 군상담심리 과정을 운영하지만, 박사과정은 군사학 1개 과정만 운영하고 있다. 대전대학교 군사 산업정보대학원에서는 석사과정으로 군사학과와 국방획득관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대학의 군사학과 학사학위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군사학 석박사 과정과도 연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군사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장차에는 석박사 과정에 입학하여 군사학을 연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5. 일반대학 교육과정 발전방안

5.1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김재춘 교수는 일반적으로 교육에서 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분야라고 정의하고,¹¹⁷⁾ 이러한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대별하고 있다. 첫째, 보수적 교육과정의 관점이다. 교육을 정보나 지식의 일반적인 전달활동으로 규정하고, 전통적으로 가르쳐오던 교과중심의 교육을 중시한다. 교육을 통한 사회화나 문화의 기제를 통하여 기존 사회문화체제로 효율적으로 편입시키고자 노력한다. 한마디로 교과와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진보적 교육과정의 관점이다. 전통적인 교과를 강조하는 대신 배움의 주체가 되는 학생의 성장을 강조한다. 교육은 교과나 특정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문제해결활동이나 탐구활동을 강조한다. 학생의 관심, 이전의 경험, 개인적 성장과정, 학습 스타일 등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경험을 중시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론이다. 셋째는 위의 두 가지 보수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과 달리, 교육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는 급진적 교육과정의 관점이다. 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인식할 수 있는 비판적인 능력을 갖추게 하여 사회변혁을 추구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세 가지의 관점이 군사학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어느 하나의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군사학의 학문 영역에 기초한 교육과정, 교육자 중심이 아닌 피교육자인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장차 군을 개혁하고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5.2 일반대학교 학생지도와 훈육

일반대학에서는 학생지도 또는 생활지도라는 용어를, 군 관련기관인 사관학교와 학생군사학교는 훈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대학의 학생지도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특성과 잠재역량을 발견하고, 학업지도나 차후 진로 문제, 그리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학생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안내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훈육은 어느 정도의 외부규제에 의한 순응을 유도하는 측면이 강하다. 박용현 교수는 훈육(moral education)이란 군대에 있어서 군인으로서 이상적인 품성과 인격, 자질을 기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8]

일반대학 군사학과는 지도교수에 의한 학생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영남대학교의 예를 들면, 1학년 입학에 지도교수가 약 40명 수준의 학생의 지도를 맡아 졸업할 때까지 4년간 학업, 진로,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상담하고 지도한다. 반면에 사관학교와 학군교에서 시행하는 훈육은 이를 전담하는 현역장교인 훈육관이 편성되어 있다. 훈육관에 의한 생활관 내에서 단체생활을 하면서 군인의 품성, 기본정신자세나 태도를 체득하게 된다. 김용현 교수는 일반대학에서 장차 장교가 될 학생들에게 현재의 대학 학생지도시스템으로는 부족하므로, 사관학교에서 시행하는 훈육성격이 가미된 교육과정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9].

같은 맥락으로 한관수 교수는 일반대학의 군사학과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가지로 대별하고 있다. 즉 이론교육과정과 훈육교육과정이다. 이론교육과정은 군사학 학문체계 연구위원회에서 제시한 군사학 5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리더십 등을 포함한다. 훈육교육과정은 도덕적 용기, 투철한 책임감, 강인한 체력 등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20] 그러나, 현재 일반대학의 훈육교육과정은 단편적인 안보현장 견학이나 군 부대 체험학습 형태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 따라서, 일반대학 군사학과는 훈육을 겸한 학생지도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5.3 일반대학 군사학과 현재 교육과정 분석

일반대학 군사학과와 교육목표나 교육중점을 살펴보면 대동소이하다. 영남대 군사학과와 의 경우, “미래의 안보환경과 전장환경이 요구하는 전문직업장교와 군사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지식의 배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8개 협약대학의 군사학과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직업군인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춘 장교양성과 군사학 전문지식을 갖춘 군사전문가의 육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21]

이러한 교육목표아래 설계된 일반대학 군사학과 과

육과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첫째 각 대학이 공통적으로 교양과 전공으로 분리하고, 필수와 선택개념으로 과목을 편성하고 있다. 교양과목에서는 장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어, 체육, 글쓰기 등의 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전공과목 편성에 있어서는 각 대학교마다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군사학 협약대학 학사운영 평가 시에 조사된 결과를 보면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은 큰 차이를 보인다. 8개 대학교가 개설한 과목 수는 총 46개 과목이다. 그 중 ‘군사학개론’ 1개 과목만 8개 대학이 공통으로 개설하고 있다. 1개 대학에서만 개설하고 있는 전공과목도 무려 10개 과목에 이른다. 그 교과과목명으로는 ‘군인의 길’, ‘장교의 도’, ‘국방기획관리’, ‘국방경제학’, ‘위계임’, ‘국제분쟁론’, ‘군사행정실무’, ‘작전술’, ‘참모학’, ‘군수론’, ‘고급지휘론’이다. 5개 대학 이상이 개설하고 있는 과목 수는 15개 과목으로 전체과목 수의 약 30%에 불과하다. 그 과목명을 보면 ‘군사이론’, ‘세계전쟁사’, 무기체계론, 군사사상, 리더십, 직업군인론, 군사지리학, 군대윤리, 군사영어, 민군관계론, 국방정책론, 군사사, 국방조직론이다. 이는 유사한 교육목표와 하나의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육군장교의 교육과정이 각 대학마다 상이하다는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대학이 군사학 전공 실기과목으로 장교의 품성과 자질 함양, 학생지도를 위해 ‘잠재역량개발’, ‘태권도’, ‘체력단련’ 등의 과목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5.4 미국 일반대학 사례

미국 육군사관학교는 국방전략 (defense & strategy)전공 학과에서 한국의 군사학과와 유사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즉 수십 개의 학과 중 하나인 국방전략 학과는 전술, 군사전략, 군사혁신, 전쟁이론, 전쟁법, 전쟁사, 국제관계, 군사지리 등의 교과과목을 개설하고 있다.[22]

대부분의 일반대학은 군사학(Military Science)을 ROTC 프로그램과 결부하여 부전공으로 제공하고 있고, 군사학 단일 전공을 제공하는 학교는 주로 온라인 대학이다. 그 중 미국군사대학(American Military University)는 군관련 2개 학사 전공과정을 개설하고 있

다. 군역사(Military History)학과는 주로 전쟁사를, 군경영 및 획득(Military Management and Program Management) 학과는 군 부대 운영과 물자 획득에 대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23]

5.5 일반대학 군사학과 교육과정 개선안

앞의 3,4,5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일반대학 군사학과 교육과정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군관련 기관(병과학교, 사관학교)의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고, 2) 군사학의 학문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문헌분류표상의 군사공학도 포함하며, 3) 대학교육의 학문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4) 졸업생의 실질적 수요자인 육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5) 군사학 석박사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6) 장교라는 특수한 전문직업이 요구하는 품성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훈육성격이 가미된 학생지도가 가능토록 하며, 7) 교육과정론에서 바라보는 보수적, 진보적, 급진적인 세 가지 관점을 균형있게 충족시키는, 그러한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위와 같이 도출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일반대학 군사학과가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설계할 때 포함되어야 필수적인 과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양과목은 기본소양, 리더십, 체력단련 분야로 5개 과목, 전공과목은 군사학 9개 과목, 군사공학 2개 과목, 훈육지도 3개 과목으로 분류하였고, 그 세부 교과과목명은 다음 <표 6>에 제시하였다. 학점에 대한 사항은 제시된 기준표를 바탕으로 대학 특성에 맞게 결정할 일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도출된 교육과정은 4년제 일반대학에 적용될 수 있으며, 2년제 대학은 육군이 통제하는 과목(군대윤리, 국가관, 북한학)을 필수과목에 편성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여기서 군사훈련에 대한 논의를 덧붙이고자 한다. 방학기간 중에 시행하는 학군단의 군사훈련처럼, 군사학과 학생들에게 훈련기간이나 내용을 달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학점에 반영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훈육지도 분야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유는 장교에게 필요한 단체의식, 책임감, 군인정신은 군사훈련에 의해 길러지고, 또한 그 시기도 대학생이나 사관생도 기간에 형성되기 때문이

다.[24] 현재는 대학 4년간 약 2주간의 병영체험이 전부인 실정으로 너무 짧다고 본다. 이러한 단기간의 경험으로는 군인정신이나 군대문화와는 동떨어진 장교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6> 일반대학 군사학과 필수 교육과정

분 야		교과 과목
교 양	기본소양	영어, 한국사
	리더십	리더십, 군상담심리
	체력단련	체육(피트니스, 달리기)
전 공	군사학	전쟁사, 군사사상, 군사전략, 국가안보, 북한학, 군대윤리, 국방정책, 군사법, 군사영어
	군사공학	무기체계, 무기공학(무기과학기술)
	훈육지도	병영체험, 잠재역량(장교자질, 품성) *군사훈련(비학점)

6. 결 론

앞으로 군사학이 일반대학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일반대학 군사학과는 창차 미래의 우수한 장교를 교육하고 배출하는 산실이 되어야 한다. 군사학이라는 학문의 연구와 군 장교의 배출이 일반대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대학 군사학과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편성되어야 한다. 본고는 일반대학 군사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기준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제 요소를 분석을 하였다.

군사학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군 기관의 군사학 교육과정을 보면, 육군 병과학교는 위관급 초급장교의 실무수행능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군사학의 학문영역은 그 주요 연구영역으로 전쟁과 군사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학문분류표상의 군사학은 사회학적인 군사학과 공학적인 군사공학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학교육의 지향하는 바는, 지식탐구

의 학문성과 직무 수행능력 획득의 실용성, 모두를 견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국내에서 개설되고 있는 군사학 석박사과정과는 어느 정도 연계성을 유지하여 학부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수요자인 육군은 군사학 지식을 갖추고, 투철한 군인정신과 체력을 겸비한 장교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학생지도는 군기관이 시행하는 훈육지도의 성격이 가미되어,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일반대학 군사학과와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교과과목으로 교양 5개 과목, 전공 14개 과목 총 19개 과목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이중 군사훈련은 비학점 과목으로 육군과 대학이 추가적인 상호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육군과 8개 대학이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군사학과 학생들에 대한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된 19개 과목에 대한 세부 교과내용은 추가 연구가 되어야할 분야이다.

참고문헌

- [1] 군사학학문체계 연구위원회, '군사학 학문체계와 교육체계 연구',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0.
- [2] 한관수, "민간대 군사학과 교육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군사발전연구, 1-67쪽, 2008.
- [3] 한관수, "일반대학 군사학 발전방향", 조선대학교 군사발전연구, 1-28쪽, 2011.
- [4] 국방일보, "육군 장교 978명 군사학사", 2009.2.25.
- [5] 육군보병학교 홈페이지, <http://www.inftsch.mil.kr/>
- [6] 육군교육사령부 홈페이지, <http://www.tradoc.mil.kr/>
- [7] 김열수, "군사학의 학문체계 정립", 군사논단 제39호, 한국 군사학회, 197-201쪽, 2004.
- [8] 군사학학문체계 연구위원회, 위의 책, 301쪽
- [9] 황진환 외 공저, '군사학개론', 27쪽, 양서각, 2011.
- [10] 황진환 외 공저, '군사학개론', 27쪽, 양서각, 2011.
- [11] 이준학, "군사공학의 학문분류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화랑대논문집 제5집, 제2권, 2012.
- [12] 박순연, "DDC상의 군사학 분야 분류진개에 관한 연구", 국립대학도서관보 제 20집, 96-99쪽, 1999.
- [13]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http://www.nrf.re.kr/>, 학술연구분야 분류표.
- [14] 김장흠, "군사학교육체계 발전방안", 제1회 압량 군사학술 세미나, 군사학 학문체계 및 군사학과 과목체계 발전방안, 97-98쪽, 2013.
- [15] 진석용, "고등군사법에 의한 군사학교육 발전 방안(1)", 군사학 연구 3,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14쪽, 2005.
- [16] 육군본부, "12년 군사학과 협약대학 학사운영 평가 결과", 육본인사사령부, 5쪽, 2012.
- [17] 김재춘, '교육과정', 교육과학사, 40쪽, 2012.
- [18] 박용현, "군사학 졸업생 경쟁력 향상방안", 제1회 압량 군사학술세미나, 군사학 학문체계 및 군사학과 과목체계 발전방안, 25쪽, 2013.
- [19] 박용현, "군사학 졸업생 경쟁력 향상방안", 제1회 압량 군사학술세미나, 군사학 학문체계 및 군사학과 과목체계 발전방안, 39-45쪽, 2013.
- [20] 한관수, '일반대학 군사학 발전방향', 조선대학교 군사발전연구, 11쪽, 2011.
- [21] 육군과 협약을 체결한 8개 대학의 군사학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육목표, 교육중점, 전공교육과정을 분석하였음. 각 학교 홈페이지 주소 인용은 생략함.
- [22] US Military Academy, Defense & Strategic Studies, <http://www.usma.edu/dmi/SitePages/Defense%20Strategic%20Studies.aspx>
- [23] American Military University, <http://www.amu.apus.edu/lp2/bachelors-degrees/index.htm>
- [24] 김장흠, "군사학교육체계 발전방안", 제1회 압량 군사학술 세미나, 군사학 학문체계 및 군사학과 과목체계 발전방안, 102쪽, 2013.

[저자소개]



김 종 열(Kim Jong Ryul)

1980년 3월 이학사
1989년 12월 물리학 석사
1996년 5월 재료공학 박사

email : jrkim1201@yu.ac.kr